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편집·발행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02 국내 항만 주요 동향
 14 국외 항만 주요 동향
 25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국내 항만 주요 동향

- ▶ 부산항, LNG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상업운영 개시
- ▶ 인천항만공사, 87만 m² 항만부지 공급계획 발표
- ▶ MSC, 광양항-아프리카 항로에 2만 4천 TEU급 선박 투입

국외 항만 주요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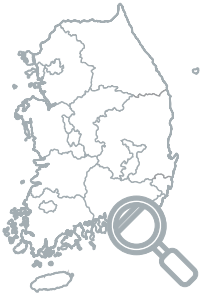
-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 메탄올 벙커링 관련 기술 기준(TR 129) 발표
- ▶ CK허치슨, MSC 자회사에 파나마 항만 매각 추진에 중국 반발
- ▶ MSC, 아시아-북유럽 노선 투입 선박량 감축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 ▶ 컨테이너,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사상 최대 수준 직면
- ▶ 시멘트, 국내 시멘트 소성로 가동 중단 증가
- ▶ 철재, 현대제철 비상경영체제 돌입

01 국내 항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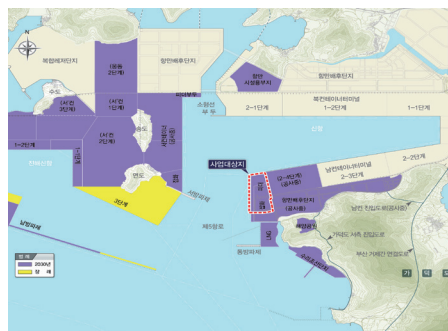
1) 부산항



1 부산항 신항 남‘컨’ 서측 피더·잡화부두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성¹⁾

-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신항 남컨테이너 서측 피더·잡화 부두를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 사업으로 조성하기 위해 기획제안을 공모함
-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은 지난해 10월 ‘2024년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신규로 도입된 방식으로 유휴 국유지 및 공유지를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업을 기획하는 민·관 협업 방식임
- 기획제안 공모 접수는 3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90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7월 중으로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임
- 이를 통해 부산항 신항 환적 경쟁력 확보 및 향후 개장될 진해신항과의 연계, 비용 절감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사업 타당성을 제고하는 등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국내 항만개발사업에서 대상지공모형 민간투자방식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가 됨

부산항 신항 남‘컨’ 피더잡화부두 개발 대상



위치도

- 피더부두(2천TEU급) 2선식
- 잡화부두(3만DWT급) 1선식
- 부두연장 902m(662m+240m)
- 부지조성 363,100㎡
- 피더 241,900㎡, 잡화 121,200㎡
- 기타 운영시설 등 1식

기본계획(안)

자료: 해양수산부, [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653&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375&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9&searchValue=%EB%B6%80%EC%82%B0%ED%95%AD\(2025.03.17. 검색\)](https://www.mof.go.kr/doc/ko/selectDoc.do?docSeq=60653&pagecnt=10&searchDeptName=&menuSeq=375&searchEndDate=&searchEtc1=&searchEtc2=&searchEtc3=&searchEtc4=&searchEtc5=¤tPageNo=1&searchSelect=title&searchStartDate=&recordCountPerPage=&bbsSeq=9&searchValue=%EB%B6%80%EC%82%B0%ED%95%AD(2025.03.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 연합뉴스(2025.02.27.), [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45\(2025.03.17. 검색\)](http://www.haes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845(2025.03.17. 검색))

2 국내 최초 LNG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상업운영 개시²⁾

-  BPA는 국내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에 대한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상업운영을 개시함
 -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은 부산항 신항 7부두(DGT)에서 진행되었으며, 하역작업 중인 7,700TEU급 선박에 약 2,400톤의 LNG를 STS(Ship-To-Ship) 방식으로 공급함
-  BPA는 지난해 글로벌 친환경 항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선박 연료의 벙커링 및 하역 동시작업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상업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함
-  벙커링과 하역 동시작업으로 선사들의 비용 절감에 따른 부산항 이용 확대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친환경 선박 확대에 대비한 연료 공급체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항만 경쟁력을 더욱 높일 예정이라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21.),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445&idx=33285>(2025.03.18. 검색)

2) 인천항



1 인천항만공사, 87만 m² 규모의 항만부지 공급계획 발표³⁾

❖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남항 아암물류 2단지 및 신항 배후단지 등 모두 87만m² 규모의 항만부지를 공급할 계획이라 밝힘

- 세부적으로 아암물류 2단지 2단계는 59만 m²의 규모로 '25년 상, 하반기에 걸쳐 단계적으로 공급되며 중소형 필지(11개), 중대형 필지(6개)로 구성하여 국내외 물류 및 제조기업을 유치할 계획임
- 아암물류 2단지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은 25.6만 m²로 현재 3개 기업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가 입주해 있음
- 특징으로는 전국 최대 세관 해상특송센터, 인천공항과의 Sea&Air 연계성, 對중국 카페리 정기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마지막 잔여부지 11.1만 m²에 대해서는 민간제안방식으로 공급 중에 있음
- 신항 배후단지의 콜트체인 특화 구역은 모두 23.1만 m²로 A-Type은 올해 상반기 내 입주 계약 및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B-Type은 6개 필지에 대해 민간제안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임⁴⁾

❖ 아울러 IPA는 기업지원 및 유치 활성화 차원으로 기업유치센터를 통해 배후단지별 유치 담당자 배치, 인허가, 기반시설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임

- 또한, 물동량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항만 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항만 부지 확보 및 공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3.11.),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56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5.03.20.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563&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2(2025.03.20. 검색))

4) 에이타입(A-Type) 입주기업 :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공급시설과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운영
비타입(B-Type) 입주기업 : 액화천연가스(LNG) 냉열 활용 냉동·냉장 물류센터 설치·운영

2 인천-동남아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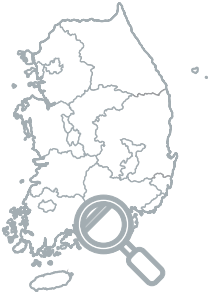
- IPA는 범주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이 공동운영하는 인천-칭다오-하이퐁(IQH) 서비스가 신규 운영된다고 밝힘
- IQH 서비스는 1,000TEU급 선박 2척이 투입, 주 항차 서비스로 인천-칭다오-하이퐁-서커우(중국)-샤먼-인천을 기항함
- 해당 서비스의 첫 항차로 범주해운의 팬콘 글로리호가 3월 19일 한진인천컨테이너 터미널(HJIT)에 입항함
- IQH 신규 서비스에 따라 연간 53,000TEU 이상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며, 금회 신규 항로는 올해 인천항에 개설된 4번째 컨테이너 항로로서, 인천-하이퐁 간 정기서비스는 기존 11개에서 12개로 증가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3.1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617&search 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3.20.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617&search%20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3.20.%20검색))

3) 여수·광양항

① MSC, 광양항-아프리카 항로에 2만 4천 TEU급 선박 투입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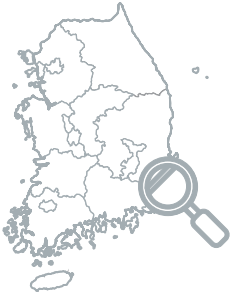
- 여수광양항만공사(YGPA)는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광양항-아프리카 항로에 초대형 컨테이너선(2만 4천 TEU급)을 투입한다고 밝힘
- 3월 중 MSC 딜레타(DILETTA)를 시작으로 TURKIYE(24,346TEU), TESSA(24,116TEU) 등이 아프리카 항로에 순차적으로 투입될 예정임
- MSC는 광양항-아프리카 항로를 지난 '18년 1만 3천 TEU급 선박으로 신규 기항한 이래 이번 2만 4천 TEU급 초대형 선박까지 지속적인 선박 대형화를 추진해왔음
- 이는 광양항의 대형 선박 수용 능력과 인프라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광양항을 이용하는 미주, 유럽 등 원양항로에 투입되는 선박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8천 TEU급 이상 광양항 기항 선박이 247척('22년)에서 377척('24년)으로 약 53% 이상 늘어나는 등 대형 선박의 입항척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YGPA는 이번을 계기로 광양항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선박 대형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9년 개장을 목표로 한 자동화 컨테이너부두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힘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6)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2.27.), https://www.ygpa.or.kr/hmpg/ygpa/comu/news/anuc/bordContDetail.do?mode=W&bbs_no=213&pst_no=DA88F67DB9744D24AF0195A6A2ADDC15(2025.03.19. 검색)

4) 울산항



1 울산시, 3월 4일 ‘울산지역 국가 중요시설 대드론 통합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⁷⁾

- 🔍 협약에는 울산시, 산업통상자원부,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한국공항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기업 등 국가 중요시설을 관리하는 14개 기관이 참여함
 - 대드론체계는 드론의 탐지 및 식별 후 타격하는 능력을 모두 갖춘 체계를 의미하며, 설비는 드론 탐지레이더와 식별·추적용 장비, 전파 교란용 재머(무선 주파수 전파 방해 장치) 등으로 구성됨
 - 울산은 국내 최대 산업단지,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이 밀집한 곳으로, 드론을 활용한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음
 - 협약에 따라 참여 기관들은 ‘대드론 체계 연결망 구축’, ‘불법드론 탐지 시 대응’, ‘대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에 협력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25년 1분기 내항화물선사 유류세 보조금 지원⁸⁾

-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울산청)은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울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 사업체 31개사를 대상으로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신청을 접수받아 3월 중 지급할 계획임
 - 유류세보조금은 「해운법」 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에 부과되는 세액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정부 보조사업임
 - 이번 보조금은 '24년 12월 9일부터 올해 2월까지 내항화물 운송 목적으로 구입·사용한 선박용 연료유 중 경유를 대상으로 하며, 보조금 지급 단가는 리터당 224.28원이 지원됨
 - 그 외에도 경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한시적으로 보조하는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도 2월까지 연장 시행됨
 - 울산청은 '24년에 14개사 115척에 대해 12억 원의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신속한 유류세 보조금 지원을 통해 내항선사의 경영 개선에 도움을 줄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7) 세계일보(2025.03.04.), [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04514275?OutUrl=naver\(2025.03.23. 검색\)](https://www.segye.com/newsView/20250304514275?OutUrl=naver(2025.03.23. 검색))

8) 울산지방해양수산청(2025.02.18.), [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08851\(2025.03.23. 검색\)](https://ulsan.mof.go.kr/ko/board.do?menuIdx=873&bbsIdx=108851(2025.03.23. 검색))

5) 평택·당진항



1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평택해수청·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협력 다짐⁹⁾

-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허길 신임 회장과 임원진이 평택지방해양수산청(평택청) 도경식 청장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최원용 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진행함**

 - 협의회는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 시설 시찰 후 발견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평택청장에게 전달하였음
 - 평택당진항발전협의회 회장은 해양수산부 등록 단체로서 지역 정서를 반영해 평택항의 온전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 평택청장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있는 중장기 마스터플랜의 중요성을 강조함**

 - 평택청장은 평택항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일하는 청 직원들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격려를 부탁드리라며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표명함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평택시 발전이 경기도의 발전이고, 평택항 발전이 국가 발전인 만큼 언제든지 소통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9) 뉴스프리존(2025.03.05.),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1101>(2025.03.21. 검색)

6) 포항항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여객선 및 화물선 특별안전점검 실시¹⁰⁾

-  포항지방해양수산청(포항청)은 최근 잇따른 해양사고 발생에 따라 관내 운항 중인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1월부터 3월 19일까지 내항 여객선 및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함

 - 이번 점검은 작년 12월 기타선 서해호 전복사고 이후, 올해 2월 어선 섬광호·33만선호 좌초, 제2서경호 침몰, 제2066재성호 전복 및 제2022신방주호 화재 등 해양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른 예방적 조치임
 - 포항청은 울릉도와 포항 구간을 운항하는 여객선 2척과 카페리 화물선 2척에 대해 포항해경,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선급 등과 합동으로 복원성 확보 및 화재 예방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함
 -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물적재·고박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입출항신고·항해 계획 수립 적정성, 구명조끼 착용 지도·감독, 비상대응·적정선원 승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10)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3.10.), <https://pohang.mof.go.kr/ko/board.do?menuIdx=2855&bbsIdx=109223>(2025.03.21. 검색)

7) 동해·묵호항



1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해빙기 대비 건설현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¹¹⁾

- 동해지방해양수산청(동해청)은 해빙기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지난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어항·연안정비 건설현장과 항만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함
- 이번 안전점검 대상은 ‘동해항 3단계 방파호안(2공구) 축조공사’ 등 건설현장 7개소와 동해·묵호항 내 부두, 방파제, 물류창고 등 항만운영시설, 평소 방문객 등 이용 빈도가 높은 국제여객터미널 등임
- 기온이 상승하는 해빙기에는 지반 약화 등으로 항만시설물에 균열과 파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건설현장의 경우 겨울철 얼어있던 토양이 녹으면서 지반 침하, 급경사지 무너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해빙기는 이들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시기임

동해청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시설 설치 등을 시정 조치할 예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8) 목포항



1 전라남도, 목포항 서남권 핵심 지원항만 육성 위해 2,259억 원 투입¹²⁾

- 전라남도가 글로벌 해운·항만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목포항을 서남권 핵심 지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함
- 목포신항 진입도로 건설, 5만 톤급 자동차 부두 확충 등 24개 사업에 총 2,259억 원을 투입할 예정임
- 이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6개 분야 75개 해운·항만 사업(총 3,630억 원)의 핵심 부분을 차지함
- 목포항 육성은 전남도의 스마트 항만 건설, 연안해운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해양 발전 정책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함
- 목포항 인프라 확충은 항만 물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11) 동해지방해양수산청(2025.02.28.), <https://donghae.mof.go.kr/ko/board.do?menuIdx=2536&bbsIdx=109039>(2025.03.21. 검색)

12) 전라남도청 보도자료(2025.03.13.), [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8247&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D%95%AD&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5.03.21. 검색\)](https://www.jeonnam.go.kr/M7116/boardView.do?seq=1958247&infoReturn=&menuId=jeonnam0202000000&displayHeader=&searchType=0&searchText=%ED%95%AD&searchStDate=&searchEnDate=&pageIndex=1&boardId=M7116&displayHeader=(2025.03.21. 검색))

9) 대산항

① 대기 질 개선대책으로 '대산항 수림대 조성공사' 시행¹³⁾

- 대산지방해양수산청(대산청)이 시행하는 수림대 조성은 대산항 동측준설토투기장과 인근 하역 경계부분에 조성될 예정이며, 금년 11월 완료할 계획임
- 수림대는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해송 등 해풍에 강한 수목을 선정하고 약 5,900㎡ 면적에 조성할 계획임
- 수림대를 조성하게 되면, 대산항 주요 취급화물인 목재펠릿, 석고 등의 하역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강풍 등 기상악화 시 발생하는 먼지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② 해빙기 대비 항만·어항시설물,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¹⁴⁾

- 대산청은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2월 24일부터 3월 21일까지 충청지방 항만 및 어항 시설물 122개소와 건설현장 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함
- 안전점검 대상은 대산항 국가부두 등 항만시설물 20개소, 삼길포항 등 국가어항 시설물 102개소, 대산항, 남당항, 무창포항, 장고항 등 항만 및 국가어항 건설현장 5개소가 해당됨
- 봄철 해빙기에 땅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침하, 구조물 변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 점검 후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은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보강 조치할 예정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13)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2.28.),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9083>(2025.03.23. 검색)14)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5.02.28.),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9082>(2025.03.23. 검색)

10) 군산항



1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항 경쟁력 강화 차원의 다양한 정책 추진¹⁵⁾

-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은 국내외 물동량 유치 마케팅 강화, 전략화물 유치 등을 목표로 포트세일 추진을 계획함

 - 전북도, 군산시, 군산해수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포트세일단을 구성, 국내 및 해외 화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항만운영, 배후단지 관리, 포트세일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기업 설립을 검토할 예정임

 - 군산항은 토사 퇴적에 따라 수심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물동량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힘
 - 준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차원의 지방 공기업 설립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공기업은 항만운영, 배후단지 관리 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될 예정임
 - 향후, 전북특별자치도는 용역비를 확보,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공기업 설립 시 지역경제 효과, 재정자립도,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아울러 지난 '23년 2월 개장한 특송화물 통관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규모 확대를 행안부, 관세청에 건의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군산항 증설 예산 확대 및 제2준설토 투기장 역시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 밝힘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5)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5.03.1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617&search_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3.20. 검색\)](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9617&search_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tPageNo=1(2025.03.20. 검색))

11) 마산항



①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 마산해양신도시 현장 점검¹⁶⁾

- 창원특례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지난 7일 마산해양신도시와 가포신항 크루즈 세관·출입국·검역(CIQ) 터미널 조성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함
- 위원회는 마산해양신도시에서 사업 추진 관련 핵심 문제인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여러 쟁점 사항을 듣고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당부함
- 이어 가포신항에서는 CIQ 터미널 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고, 의회 차원에서 협력 사항을 모색함
- CIQ 시설을 갖춘 여객터미널은 승객의 승·하선 시 신속한 출입국 절차를 위한 것으로, 외국적 크루즈선 유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임
- 창원시는 경남도와 함께 남해안 관광벨트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포신항을 크루즈 기항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16) 경남신문(2025.03.09.), <https://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455243>(2025.03.19. 검색)

02 국외 항만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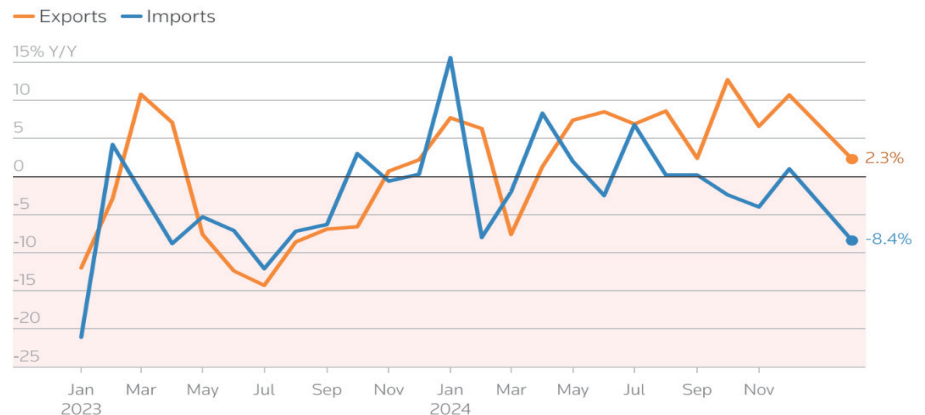
1) 중국



① 중국, 2월 누적 기준 수입 감소 및 수출 둔화¹⁷⁾

- '25년 2월 누적 기준 중국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며, 수출은 2.3% 증가함
 - 수입은 곡물, 철광석,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 비축량 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임
 - 수출은 12월 증가율인 10.7%와 비교하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전 출하량을 앞당기기 위한 노력이 중단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등을 사유로 2월 4일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3월 4일에는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여 총 20% 관세가 부과되고 있음
- 한편,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미국산 농산물에 10~15%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25개 미국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진행하는 등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어 수출입 약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 수출입 증가율 추이



주: 중국은 춘절 연휴 영향을 고려해 1월과 2월 데이터를 통합하여 발표함.

자료: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imports-tumble-demand-skids-trade-war-heats-up-2025-03-07/> (2025.03.17.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7) Reuters(2025.03.07.),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imports-tumble-demand-skids-trade-war-heats-up-2025-03-07/> (2025.03.17. 검색)

2 미국, 중국산 선박 미국 항만 입항 시 요금 부과 방안 추진¹⁸⁾

-  미국 정부는 조선업에서의 중국 지배력 확대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중국산 선박이 미국 내 항만으로 입항 시 최대 15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조선업에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으며, '24년 기준 중국산 컨테이너선의 시장 점유율은 81%를 기록함
 - 이에 바이든 행정부 당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조선산업 지배력에 대한 불공정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조사의 결과가 1월에 발표됨
 - 해당 보고서에는 중국이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진입 장벽, 강제 기술 이전 등을 통해 조선업에서 부당한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고 결론지음
 -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선박이 미국 항만에 입항할 시 최대 150만 달러의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
 - 이를 통해 미국 수출품의 1%를 미국 국적 선박으로 운송하고, 7년 안에 해당 비중을 15%까지 확대할 계획임
-  해운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컨테이너당 600~8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 '24년 기준 미국으로 수입된 화물의 약 21%가 중국산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으며, 주요 선사들이 주문한 신조선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건조될 예정임에 따라 해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이에 주요 선사들은 미국 항만 기항 횟수를 줄이거나, 특정 항만으로 화물을 집중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백악관에 조선산업 특별기구를 신설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 발표함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18) CNBC(2025.03.12.), <https://www.cnbc.com/2025/03/11/trump-pursues-new-trade-war-on-seas-targeting-china-containerships.html>(2025.03.17. 검색)

2) 아시아



1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 메탄올 벙커링 관련 기술 기준(TR 129) 발표¹⁹⁾

- 🔍 싱가포르 해양항만청(MPA)과 Enterprise Singapore(EnterpriseSG)는 싱가포르 표준위원회(SSC)를 통해 메탄올 벙커링(Methanol Bunkering) 관련 기술 기준(TR 129)을 발표함
 - 해당 기준은 메탄올을 선박의 연료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 🔍 TR 129는 메탄올 벙커링 작업 시 안전한 취, 공급 및 측정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해당 규정에는 선박 간(ship-to-ship) 메탄올 벙커링 작업 시 품질 및 물량 측정 기준, 벙커 탱커에서 선박으로 메탄올을 공급하는 과정에서의 안전 지침 등이 포함됨
 - 또한, 관련 인력 교육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레임워크, 벙커링 물량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질량 유량계(MFM) 시스템 활용 지침 등도 담고 있음
- 🔍 TR 129는 싱가포르 화학산업위원회(SCIC) 및 표준개발기구(SDO@SCIC)의 지원으로 개발됨
 - 정부 기관, 연구소, 관련 이해관계자(공급업체, 선주, 엔진 제조업체, 인증 기관 등)가 참여하여 협력함
 - 이를 통해 메탄올을 선박 연료로 안전하게 도입하는 데 명확한 지침의 제공과 더불어 현지 운영업체들이 메탄올 벙커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고, 다연료 시대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한편, 싱가포르 항은 '23년 7월, 세계 최초 '컨테이너선-선박 간 메탄올 벙커링'에 성공하였고 '24년 5월, 싱가포르 투아스항에서 최초로 '화물작업과 메탄올 벙커링 동시 진행'에도 성공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19) MPA(2025.03.10.), <https://www.mpa.gov.sg/media-centre/details/singapore-launches-new-standard-on-methanol-bunkering-paves-way-for-maritime-industry-s-transition-to-sustainable-alternative-fuels> (2025.03.20. 검색)

2 DP월드, 제벨알리항에서 기록적인 물동량 달성²⁰⁾

 DP월드의 핵심 항만인 두바이 제벨알리항이 '15년 이후 최고 컨테이너 및 일반화물 물동량을 기록함

- '24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1,550만 TEU로 전년 대비 100만 TEU 증가했으며, 이는 DP월드 글로벌 물동량(8,830만 TEU)의 약 18%를 차지함
- 일반화물 물동량은 전년 대비 23% 증가한 540만 톤으로, 10년 내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함

 제벨알리항의 물동량 증가는 아시아 및 인도 대륙으로부터의 수요, 신규 해운 서비스를 통한 글로벌 연결성 강화, 홍해 위기 등 공급망 도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화물 이동을 보장한 운영 효율성에 기인함

- 일반화물의 증가는 인프라, 재생에너지 및 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증가에 힘입어 대형 풍력 터빈, 태양광 패널, 중장비 및 건설 자재 등의 대규모 물동량 증가에 기인함
- 수입이 전체 물동량의 80%를 차지했으며, 수출은 주로 설탕, 철강 등이 차지함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3 일본, 스리랑카 디지털 전환 및 항만개발에 투자 계획²¹⁾

 일본은 최근 일본 정부가 시작한 안보 협력 지원 프로그램에 스리랑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지난 2월 27일 스리랑카 대통령과 일본 대사가 만나 지난 30년간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북부 지역 간 국가 화해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 스위스, 남아프리카 공동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짐
- 또한 일본은 스리랑카의 디지털 경제와 공항 및 항만 인프라 개선을 위한 일본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
- 스리랑카는 일본과의 이번 협력이 경제 회복과 개발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0) Supply Chain Digital(2025.02.24.), <https://supplychaindigital.com/logistics/dp-world-record-breaking-year-jebel-ali-port> (2025.03.21. 검색)

21) Adaderana Biz English(2025.02.27.), [https://bizenglish.adaderana.lk/japan-to-invest-in-sri-lankas-digital-transformation-and-port-development/\(2025.03.19. 검색\)](https://bizenglish.adaderana.lk/japan-to-invest-in-sri-lankas-digital-transformation-and-port-development/(2025.03.19. 검색))

4 인도 항만,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 구축²²⁾

-  인도의 차담바라나르항은 탈탄소화를 위한 파일럿 규모의 프로젝트를 통해 인도 최초로 친환경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힘
- 차담바라나르항은 이번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 구축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해양 산업의 친환경 에너지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녹색 수소, 녹색 암모니아, 녹색 메탄, 녹색 메탄올 등 다양한 연료 후보들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 녹색 메탄올이 가장 적합한 연료로 선정됨
 - 인도의 해양부 및 신재생에너지부의 승인으로 프로젝트는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성공 시 인도 최초의 녹색 메탄올 벙커링 인프라 항만이 될 전망이다
 - 이번 프로젝트는 인도 항만 및 해운산업의 탈탄소화 전략과 글로벌 환경 기준 준수를 위한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평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2) safety4sea(2025.02.26.), <https://safety4sea.com/indian-port-to-establish-green-methanol-bunkering-infrastructure/>(2025.03.19. 검색)

3) 미주

① CK허치슨, MSC 자회사에 파나마 항만 매각 추진에 중국 반발²³⁾²⁴⁾

● 홍콩계 항만운영사인 CK허치슨은 파나마운하 발보아항·크리스토팔항을 운영하는 파나마포트컴퍼니(PPC)의 지분 90% 매각을 발표함

- 파나마포트컴퍼니(PPC)의 지분 90%는 스위스 선사 MSC의 항만자회사인 TIL과 미국 투자회사 블랙록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매각할 계획임
- 그 외에도 전 세계 23개국에서 43개 항만을 운영하는 CK허치슨의 자회사 허치슨포트의 지분 80%도 이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합의함
- 이 거래로 TIL과 블랙록 컨소시엄은 발보아항과 크리스토팔항의 운영권을 취득하고, 홍콩·중국을 제외한 허치슨포트의 권리를 얻게 됨
- 거래 가격은 228억 달러(약 33조 1,000억 원)이며, 최종 거래는 확인 실사와 규제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4월 2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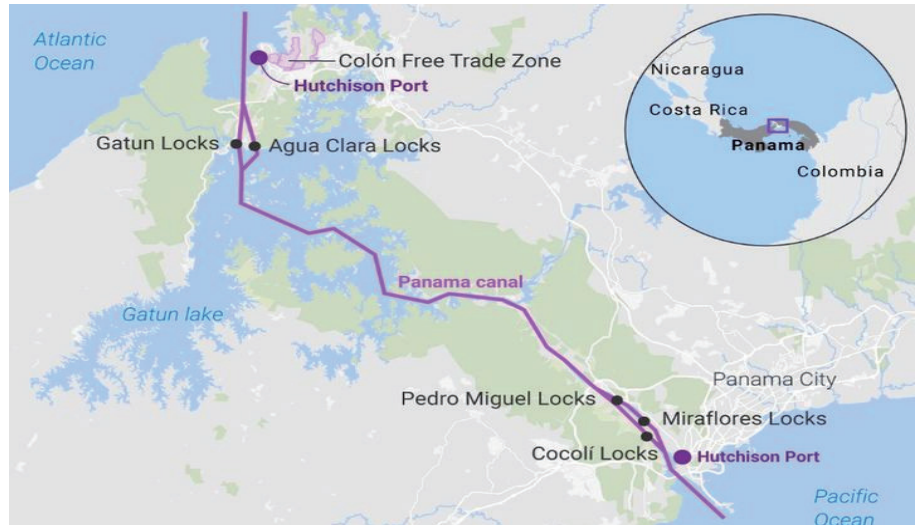
● 다만, 3월 13일 홍콩 대공보는 파나마운하 항만의 운영사업권 매각 거래를 비난하면서 CK허치슨의 거래 성사 여부의 불확실성이 커짐

- 대공보는 중국 중앙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의 통제를 받는 매체로 홍콩에서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을 대변함
- 대공보는 CK허치슨의 매각에 대해 ‘전체 중국인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자 ‘미국이 협박, 압박, 회유 등 비열한 수단을 통해 다른 나라의 정당한 권익을 착복한 패권적 행위’라고 언급하였으며, ‘어떤 입장에 서고 어느 편에 설지 잘 생각해야 한다’고 경고함
- 전문가들은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던 중국 당국이 불만을 표출하면서 매각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고 분석함
- 중국 당국은 이번 거래를 막을 직접적 권한이 없으나 CK허치슨은 항만 매각을 하지 않으면 미국을 신경 써야 하며 매각하게 되면 중국을 화나게 할 것으로 보임

23) 코리아워킹가제트(2025.03.12.), https://www.ksg.co.kr/news/main_newsView.jsp?pNum=144025(2025.03.23. 검색)

24) 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8827(2025.03.23. 검색)

CK허치슨이 운영했던
파나마 운하의
발보아항(태평양)과
크리스토팔항(대서양)의
위치



자료: 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8827(2025.03.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미국 동부 및 멕시코만 항만노동자, 6년 임금 인상 계약 승인²⁵⁾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새로운 6년간의 노동 계약을 99%의 찬성으로 승인하며 대규모 파업 위기를 피하게 됨

- '24년 10월 협상 당시 노조는 3일간 파업을 진행했으나, 추가 협상을 위해 중단했으며, 새로운 계약을 통해 현재의 시간당 임금 39달러에서 6년 후 63달러로 62% 인상을 확보함
- 새로운 계약에서는 항만이 현대화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확대했으나 완전한 자동화는 배제되어 기술 도입 시 신규 인력을 고용해야 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5) 글로벌이코노믹(2025.02.27.), https://www.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5022700390562689a1f309431_1/article.html(2025.03.23. 검색)

4) 유럽



1 로테르담·앤티워프·브뤼헤항, EU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관련, 신속한 실행 촉구 및 공동 입장 발표²⁶⁾

-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산업의 쇠퇴를 반전시키고 향후 2년간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산업딜을 발표한 가운데, 로테르담항과 앤티워프·브뤼헤항은 이에 대한 지지 의견을 발표함

 - 청정산업딜은 유럽 지역의 높은 에너지 비용, 불공정한 글로벌 경쟁, 복잡한 규제에 직면한 에너지 집약 산업의 자원과 청정기술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두 항만은 청정산업딜에서 항만과 관련된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에너지 비용 완화, 수소의 핵심 역할,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꼽았음
 - 유럽 산업계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초기 투자 비용과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EU는 에너지 비용을 안정화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및 구매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완화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EU는 수소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재생 가능 수소’의 정의 및 기준을 신속하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는 항만이 수소 수입 및 유통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으로, 항만은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인프라를 구축하여 유럽 내 수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EU는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을 통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 클러스터 간 에너지 및 원자재 흐름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항만은 이러한 인프라의 중심지로서 재생 가능 에너지와 저탄소 원자재의 수입, 생산, 분배, 저장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함
 - 두 항만은 청정산업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이나 부문이 아닌 국경 간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으로 더욱 집중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힘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6) Port of Rotterdam(2025.02.27.), <https://www.portofrotterdam.com/en/news-and-press-releases/ports-rotterdam-and-antwerp-bruges-call-swift-implementation-clean>(2025.03.21. 검색)

2 MSC, 아시아-북유럽 노선 투입 선박량 감축²⁷⁾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MSC가 아시아-북유럽 항로에서 초대형 선박을 철수하며 서비스 전략을 재조정함

- 해운 분석 기관 Alphaliner는 MSC가 기존 아시아-북유럽 항로에 투입되어 있던 19척의 19,200~24,300TEU급 Megamax 선박을 철수시키고, 아시아-지중해 및 아시아-서아프리카 노선에 재배치할 예정임
- 이러한 조치는 최근 MSC가 2M 얼라이언스 종료 이후 독자 운영을 시작한 첫 달에 이루어진 것으로, MSC가 주요 동서항로에서 독자 노선을 설계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번 철수 결정은 해당 항로의 공급 조절을 통한 운임 하락 방어 전략으로 분석됨
-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에 따르면, 상하이-북유럽 항로의 스팟 운임은 최근 TEU당 1,578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연초 이후 7주 만에 44% 하락한 수치임
- 아시아-북유럽 항로의 운임 하락이 예년보다 훨씬 가파른 반면, 아시아-지중해 노선은 비교적 정상적인 계절 변동을 따르고 있음
- 또한, 상하이-서아프리카 항로의 운임은 TEU당 평균 4,000달러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익성을 보이고 있어, MSC는 북유럽 항로보다 수익성이 높은 노선에 선박을 재배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7) Journal of Commerce(2025.02.27.), <https://www.joc.com/article/msc-pulls-megaships-from-asia-north-europe-network-alphaliner-5951934>(2025.03.21. 검색)

5) 오세아니아



① 호주 뉴캐슬 항만, 미쓰비시 중공업(MHI)과 청정에너지 단지(CEP, Clean Energy Precinct) 추진²⁸⁾

- 뉴캐슬항만은 MHI와 공식 자문 협약(Advisory Agreement)을 체결하며 청정에너지 단지(CEP) 개발을 더욱 가속화함
- 이번 협약을 통해 뉴캐슬 항만은 MHI의 수소 및 암모니아 생산·저장·유통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현재 진행 중인 CEP의 프론트 엔지니어링 디자인(FEED, Front End Engineering Design) 연구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받게 됨
- 이 청정 에너지 단지는 총 220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향후 완공 시 경제에 42억 호주달러(약 4.2조 원)의 기여 효과를 창출하고, '40년까지 헌터 지역(Hunter Region)에 수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8) Port Technology(2025.03.20.),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newcastle-advances-clean-energy-precinct-with-mhi/>(2025.03.21. 검색)

6) 아프리카



1 Transnet, 더반항 업그레이드에 34억 랜드(한화 약 2,700억 원) 투자²⁹⁾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물류 기업 Transnet은 더반항의 화물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34억 랜드(한화 약 2,700억 원)를 투자하는 대규모 인프라 개선 계획을 발표함

 - 이번 프로젝트는 항만 운영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혼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더반항만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가장 바쁜 항만 중 하나로, 국가 전체 물류 및 무역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인프라임
 - 하지만 노후화된 장비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누적되면서 운영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항만 혼잡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Transnet은 기존 시설을 현대화하고, 신규 화물 처리 장비를 대거 도입하여 운영 능력을 개선하는 전략을 추진함
 -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반항의 물동량 처리 속도를 높이고, 물류 병목 현상을 줄이며, 장기적으로 수출입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Transnet은 더반 컨테이너 터미널(Durban Container Terminal)의 피어 1(Pier 1)과 피어 2(Pier 2)에 대한 설비 교체 및 확충을 진행함

 - 이번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새로운 화물 처리 장비 100대 이상을 도입할 예정이며, 그중 일부 장비는 이미 도착하여 운영을 시작함
 - '24년 12월부터 도입이 시작된 신규 장비는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20대, 고무 타이어형 갠트리 크레인(RTG crane) 9대이며 '25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임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9) The Pinnacle Gazette(2025.03.01.), <https://evrimagaci.org/tpg/transnet-invests-r34-billion-to-upgrade-port-of-durban-241841>(2025.03.12. 검색)

03 품목 및 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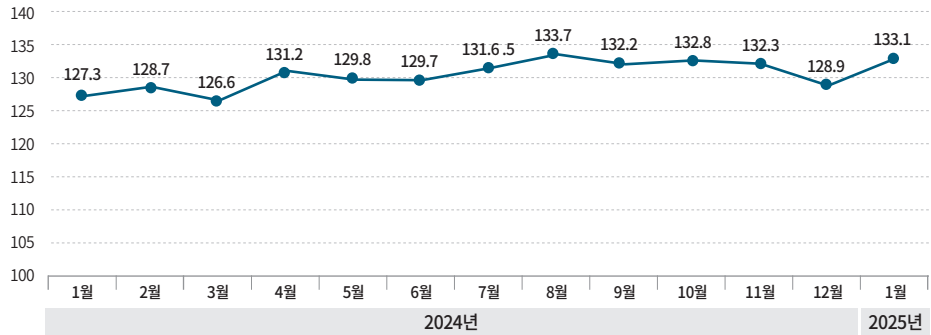
1) 컨테이너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1 '25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월 대비 3.3% 증가³⁰⁾

- ’25년 1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월 대비 3.3%,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한 133.1p를 기록함
 - 중국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지수는 143.0p로 전월 대비 1.1%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 1.4% 하락함
 - 유로존 북부와 독일 지역의 1월 항만물동량 지수(North Range Index)는 110.9p로 전월 대비 4.5%, 전년 대비 13.6% 증가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Total	127.3	128.7	126.6	131.2	129.8	129.7	131.6	133.7	132.2	132.8	132.3	128.9	133.1	3.3	4.6
China Index	145.1	138.8	137.1	154.0	144.3	144.2	146.2	148.9	146.0	146.3	143.5	141.5	143.0	1.1	-1.4
North Range Index	97.6	112.2	113.3	111.4	111.7	110.5	111.4	113.9	111.3	113.4	112.7	106.1	110.9	4.5	13.6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ISL,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3.18.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3.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0) ISL(2024.02.27.), [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3.18. 검색\)](https://www.isl.org/en/services/rwiisl-container-throughput-input-index-0125(2025.03.18. 검색))

2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사상 최대 수준 직면³¹⁾

-  무역 정책 불확실성(TPU, Trade Policy Uncertainty) 지수가 트럼프 재취임 이후 최고치로 급등함

 - TPU 지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개발한 지수로 주요 신문 기사, 기업 실적 발표, 관세 데이터 등에서 ‘무역 정책’과 ‘불확실성’ 키워드의 언급 빈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산출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한 1월 20일 이후 해당 지수는 1960년 이후 최고치로 급등하였으며, 트럼프 1기 당시 최고점 대비 약 2배 수준임
 - 재취임 이후 해운업과 관련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세금 부과 추진,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중재, 이란에 대한 압박 전략 재개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해당 지수에 영향을 미침
-  이러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기업 투자 및 경제 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무역 시장 전반의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해운업계는 지정학적 강등, 전쟁, 팬데믹 등으로 지난 10년간 극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으며 과거보다 훨씬 짧은 주기로 이러한 충격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1) Splash247(2025.03.07.), <https://splash247.com/shipping-in-the-crosshairs-as-trade-uncertainty-hits-all-time-high/>(2025.03.18. 검색)

3 해운업계 사이버 보안 위협 증가³²⁾

Thetius, CyberOwl, HFW가 발표한 사이버 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운사 5곳 중 1곳은 사이버 공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운데 7%가 사이버 공격 후 몸값을 지급했다고 밝혔으며, 평균 몸값 비용은 10만 달러 미만으로 '23년 320만 달러 대비 크게 감소함
- 사이버 공격 가운데 약 60%가 악성코드(멀웨어) 감염으로 인한 사고이며 이 중 77%가 USB 및 이동식 저장장치를 통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해운업계 관계자들의 93%는 현재 사이버 보안 위협을 다룰 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함

해운산업의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 위협에 더욱 노출되고 있으며, 선박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기업들이 보완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특히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과 표준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매년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고 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일관성이 부족하여 산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밝힘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2) Splash247(2025.03.13.), [https://splash247.com/one-in-five-shipping-companies-faced-a-cyber-attack-in-the-last-12-months/\(2025.03.18. 검색\)](https://splash247.com/one-in-five-shipping-companies-faced-a-cyber-attack-in-the-last-12-months/(2025.03.18. 검색))

2) 양곡



1

'25년 2월 밀, 대부분의 수입단가는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반면, 옥수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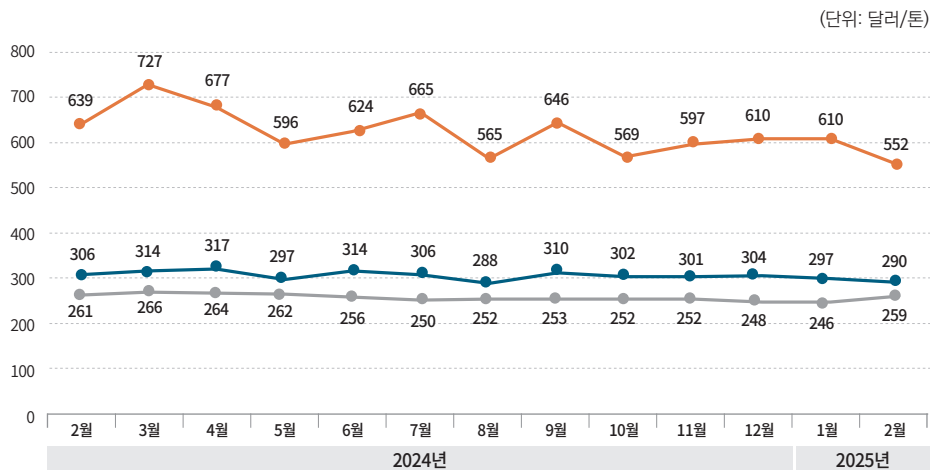
☞ '25년 2월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5.3% 감소한 톤당 290달러를 기록, 같은 기간 대두는 13.7% 감소한 552달러, 옥수수는 1.0% 감소한 259달러를 기록함

☞ 전월 대비 실적에서도 밀, 대두는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옥수수는 전월 대비 5.2% 증가 추세를 보임

☞ 밀과 대두의 국내 수입 단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됨

곡물별 수입단가 추이

● 밀
● 대두
● 옥수수



밀과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단위: 달러/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밀	306	314	317	297	314	306	288	310	302	301	304	297	290	-2.4	-5.3
대두	639	727	677	596	624	665	565	646	569	597	610	610	552	-9.5	-13.7
옥수수	261	266	264	262	256	250	252	253	252	252	248	246	259	5.2	-1.0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3) Farmers Forum(2025.03.20.), <https://farmersforum.com/canadian-grain-farmers-trade-war-threat-on-two-fronts-u-s-and-china/>(2025.03.21. 검색)

2 캐나다 곡물 농가,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위기 직면³⁴⁾

-  **캐나다 곡물 농가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동시에 무역 장벽을 마주하면서 막대한 수출 손실 및 경영 위기에 직면함**
 - 최근 중국 정부는 캐나다산 카놀라유, 카놀라박(사료용), 완두콩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는 미국과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캐나다 곡물 산업에 추가적인 타격을 주는 상황으로 인식됨
-  **미국과 중국, 캐나다 곡물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곡물 수출의 50% 이상을 차지함**
 - 미국으로는 연간 170억 달러 규모의 곡물 및 관련 제품을 수출, 중국의 경우 노란 완두콩 연평균 150만 톤(7억 4,000만 달러 규모)을 수출함
 - 미국 시장에서 무역 정책이 변동하는 중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캐나다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중국의 관세 부과는 캐나다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철강,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됨
-  **이에, 캐나다의 주요 농업 단체(GGC, CCGA, CCC, Pulse Canada)가 공동 성명을 발표, 정부가 농업 부문을 보호하고 핵심 수출 시장을 유지할 것을 촉구함**
 - 특히, GGC³⁵⁾는 중국과 즉각적인 협상 착수하여 관세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손실 보상을 위한 정부 보상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함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34) Farmers Forum(2025.03.20.), <https://farmersforum.com/canadian-grain-farmers-trade-war-threat-on-two-fronts-u-s-and-china/> (2025.03.21. 검색)

35) GGC(Grain Growers of Canada): 70,000명의 곡물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회원 농가들은 1억 1천만 에이커의 경작지에서 곡물을 생산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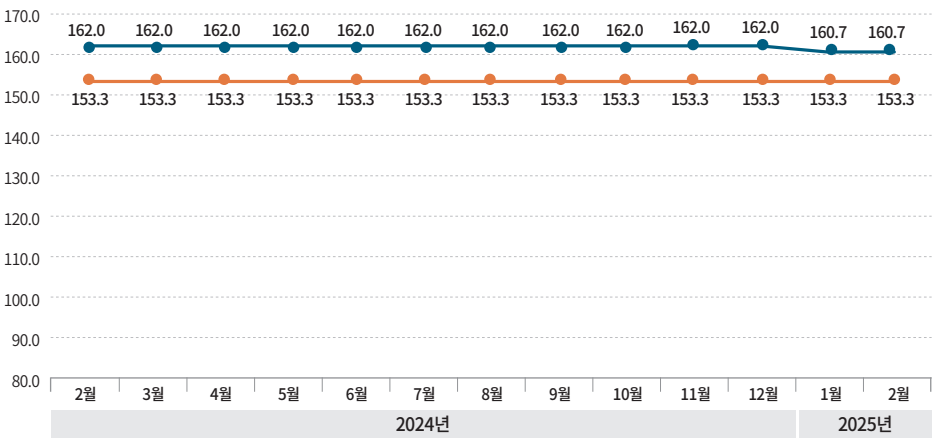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 포틀랜드
● 고로슬래그

1 '25년 2월 포틀랜드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보합세 지속

- ’25년 2월 포틀랜드 및 고로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60.7p 및 153.3p를 기록함
- 고로 시멘트는 ’23년 12월 이후 변동 없이 보합세를 보였으며 포틀랜드 시멘트는 ’24년 12월 소폭 감소세를 보임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2.0	160.7	160.7	0.0	-0.9	
고로슬래그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153.3	0.0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5.02.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2(2025.02.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국내 시멘트 소성로 가동 중단 증가³⁶⁾

- 국내 시멘트 업계가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생산량을 조절하며 소성로 가동을 줄이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운영 중인 소성로 34기 중 10기(29.4%)가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인 중단 가능성도 높음
 - 시멘트 제조사들은 생산 감축을 위해 보수 일정을 조정해 설비를 일시적으로 세우는 한편, 일부 설비에 대해서는 무기한 가동 중단을 검토함
 - 소성로는 재가동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며, 비용도 4억 원가량 발생하는 대형 설비임
 - 일반적으로 생산량 조절은 원료 투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현재처럼 여러 소성로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임
- '24년은 시멘트 수요량은 4,360만 톤으로 '98년 외환위기(IMF: 4,400만 톤) 때 보다 낮았으나 '25년 시멘트 수요량은 더 낮아진 4,000만 톤 이하로 전망됨

주요 시멘트 제조사별
가동 조정 현황

구분	현황
쌍용 C&E	• 총 10기 중 2기 가동 중단(2024년 2월부터) • 보수 작업 후 4월 재가동 예정 • 올해 2기씩 번갈아 가며 보수 진행하여 생산량 조절 계획
삼표시멘트	• 총 4기 중 현재 3기 가동 중 • 4월부터 1기 추가 중단 예정 • 가장 낡은 설비 1기 가동 중단을 검토 중
한일시멘트	• 총 6기 중 현재 3기 가동 중 • 2023년 7월부터 2기 중단 → 추가로 1기 중단(2024년 2월) • 전체 생산량을 60% 이하로 축소 예정
한라시멘트	• 총 4기 중 보수작업을 이유로 1기씩 번갈아 중단 중 • 추가로 1기 가동 중단 검토 중 → 2기만 가동할 가능성
아세아시멘트 & 성신양회	• 아세아시멘트(총 3기), 성신양회(총 4기) • 2023년 하반기부터 1기씩 가동 중단 → 현재까지 재가동 일정 미정 • 성신양회는 2025년 내내 중단하는 방안도 고려 중

자료: 대한경제(2025.03.2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201043202350867>(2025.03.21. 검색)

36) 대한경제(2025.03.21.),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201043202350867>(2025.03.21. 검색)

-  시멘트업계는 이번 대규모 가동 중단으로 인해 국내 시멘트 생산능력이 기존 6,200만 톤에서 5,000만 톤 중후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 설비 보수는 일반적으로 건설 비수기(여름·겨울철)에 진행되지만, 최근에는 1년 내내 보수를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함
 - 추가적으로, 환경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이 겹칠 경우 소성로 가동 중단 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국내 시멘트 공급이 지속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커짐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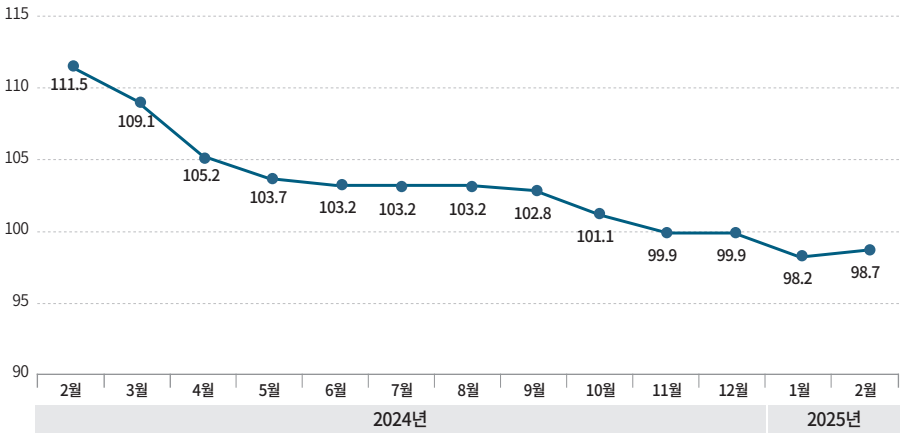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1 '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98.7p 기록, 감소세 지속

'25년 2월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감소한 98.7p를 기록함

(단위: 2020년 = 1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11.5	109.1	105.2	103.7	103.2	103.2	103.2	102.8	101.1	99.9	99.9	98.2	98.7	0.5	-11.5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3.24.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3.24. 검색))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2 골재 인허가 구조 개편 필요성 제시³⁷⁾

- 지난 3월 7일, 한국골재협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산림골재 및 바다골재 채취 확대와 골재 품질 인증제 도입이 제안됨
 - 국내 건설현장에서 불량골재 사용으로 인한 붕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골재산업의 인허가 구조가 품질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함
 - 이에 따라 골재 채취 및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됨
-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공식적인 공급원이 부족하다 보니, 시장 내 30% 이상의 골재가 불량품으로 추정됨
 - 바다골재는 벌킹(용적팽창) 현상이 발생하여 품질 저하 우려가 크며, 산림골재는 공극률(공기 함유량) 문제로 인해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결국, 골재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 불량골재가 유입되면서 품질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골재 수급 비중

구분	비율(%)
산림골재	21
신고(선별·파쇄) 골재	29
바다골재(연안·EEZ)	3
육상골재	1
미신고 골재	46

자료: 대한경제(2024.03.1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092157192370380>(2025.03.20. 검색)

37) 대한경제(2024.03.1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092157192370380>(2025.03.20. 검색)

골재 수급 비중

골재 전문가는 골재산업 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골재채취법 전면 개정’을 제시함

제시(안)	주요 내용
골재채취 인허가 체계 일원화	• 현재 골재 인허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절차가 복잡하고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특히 산림청은 산림 보호 정책으로 인해 골재채취 허가에 소극적이므로, 국토부로 관련 권한을 이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골재 품질 인증제 도입	• 품질이 검증된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골재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현장에서 불량골재 사용을 방지해야 함
골재산업법 제정 필요성	• 현재 골재 채취 관련 법령이 다원화되어 있어 허가 절차 및 관리 방식이 복잡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골재자원 및 골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골재산업법’)을 제정하여,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료: 대한경제(2024.03.10.),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503092157192370380>(2025.03.20. 검색)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및 품질 확보를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골재산업법 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밝힘

- 산림청 및 해양수산부는 법률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개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이화섭 전문연구원
051-797-4646, hslee@kmi.re.kr

5) 석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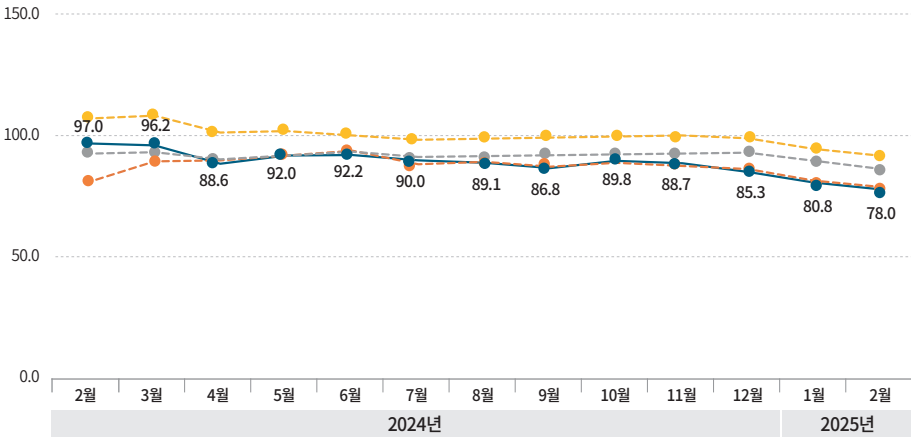
① '25년 2월 유연탄 가격 전월 대비 감소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 기준 연료탄 2월 평균가는 톤당 78.0달러로 전월 대비 3.5% 감소함
- 지역별로는 남아공 리차드베이산과 인도네시아 칼라만탄산, 중국 남부의 유연탄 가격 모두 각각 3.3%, 4.1%, 2.8% 감소함(전월 대비 기준)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 뉴캐슬
- 리차드베이
- 칼리만탄
- 중국남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97.0	96.2	88.6	92.0	92.2	90.0	89.1	86.8	89.8	88.7	85.3	80.8	78.0	-3.5	-19.5	
리차드베이	81.0	89.6	90.1	92.4	93.9	88.3	89.5	87.5	89.0	88.3	86.4	81.6	79.0	-3.3	-2.5	
칼리만탄	92.7	93.3	90.4	92.4	93.7	91.5	91.6	91.9	93.1	93.6	93.2	90.0	86.3	-4.1	-6.9	
중국남부	107.2	108.4	101.5	102.0	99.7	98.4	99.2	99.8	100.7	100.2	98.9	94.6	91.9	-2.8	-14.3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3.20.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3.20. 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미국, 석탄발전소 폐쇄 중단 추진³⁸⁾

-  미국은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은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막기 위한 ‘시장 기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사업자들이 기존 발전소를 계속 운영하고 신규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장 기반(market-based)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함
 - 미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AI, 데이터센터, 전기화 확대 등으로 장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를 주장해옴
 -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소가 전력 공급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나, 데이터센터의 주 전력원으로 석탄 발전을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짐
 - 다만, 현재 석탄은 미국 전체 전력 생산의 15%를 차지하며, '00년 50% 이상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하여, 석탄 발전의 부활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음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38) IMPACT ON(2025.03.10.),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4298>(2025.03.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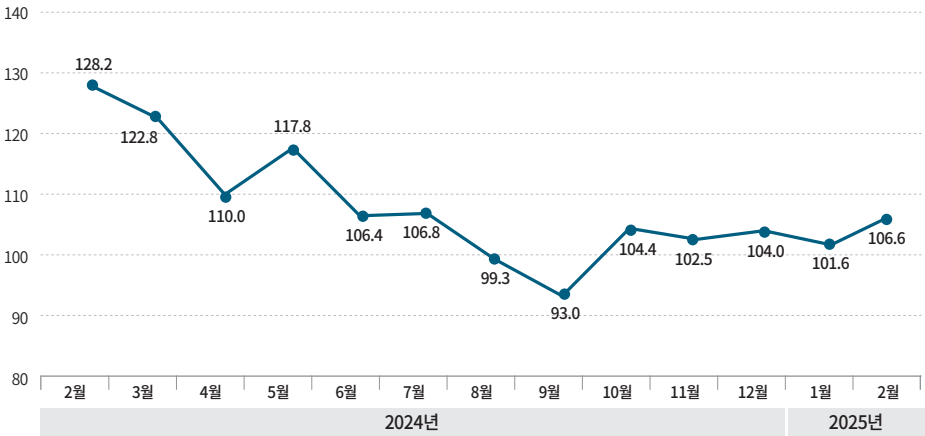
6) 철광석



1 '25년 2월 철광석 가격 전월 대비 4.9%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6.9% 감소한 106.6달러 기록

- '25년 2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은 톤당 106.6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함
- 2월 장기간의 춘철 연휴 및 봄철 건설 시즌 도입에 따라 철강 수요가 다소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소폭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내수 경기 둔화 영향으로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28.2	122.8	110.0	117.8	106.4	106.8	99.3	93.0	104.4	102.5	104.0	101.6	106.6	4.9	-16.9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3.18. 검색\)](https://www.komis.or.kr/Komis/RsrcPrice/IronOre(2025.03.18. 검색))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2 주요 광산업체 철광석 생산 확대 계획 추진

-  브라질 대표 광산업체인 발레(Vale)는 캐나다의 ‘Iron Bear’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개시함³⁹⁾
 - ‘Iron Bear’ 프로젝트는 철 함량이 71.3%인 고품질 철광석 약 166억 톤이 매장되어있는 광산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발레사는 총 2단계에 걸쳐 1억 3,8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금번 자금 지원인 1차 투자 총액은 1,800만 달러임
 - 이에 따라 발레사는 ‘Iron Bear’ 광산 지분 75%를 확보할 예정이며,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약 24,000m 규모의 시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임
 - 또한, 발레사는 브라질 북부 Carajas 단지에 122억 달러를 투자하여 철광석 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호주 대표 광산업체인 리오틴토(Rio Tinto)는 서호주 Brockman Syncline 1(BS1)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18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 밝힘⁴⁰⁾
 - BS1 프로젝트는 현재 운영 중인 Brockman 4 광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필요한 모든 정부 인허가 획득은 완료된 상태라 밝힘
 - 생산시기는 ’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간 3,400만 톤의 생산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한편, 리오틴토는 연간 6,000만 톤의 생산이 가능한 기니 지역의 Simandou 프로젝트가 올해 첫 생산을 앞두고 있어 철광석 공급량이 확대될 예정임
-  중국의 철광석 수요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고품위 철광석 수요 증가를 기대하며 주요 광산업체들은 생산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이나영 전문연구원

051-797-4697, lny0326@kmi.re.kr

39) GMK Center(2025.03.14.), [https://gmk.center/en/news/vale-starts-financing-iron-ore-project-in-canada/\(2025.3.18. 검색\)](https://gmk.center/en/news/vale-starts-financing-iron-ore-project-in-canada/(2025.3.18. 검색))

40) GMK Center(2025.03.07.), [https://gmk.center/en/news/rio-tinto-invests-1-8-billion-to-expand-ore-production-in-australia/\(2025.03.18. 검색\)](https://gmk.center/en/news/rio-tinto-invests-1-8-billion-to-expand-ore-production-in-australia/(2025.03.18.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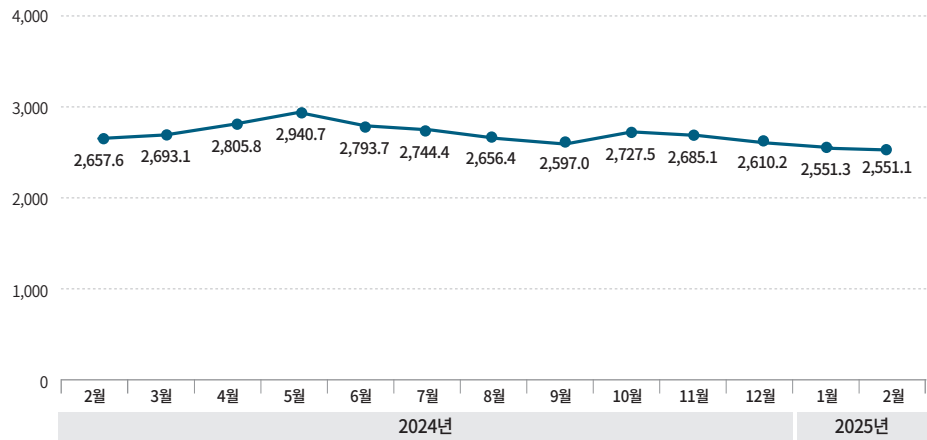


광물종합지수 추이

1 2월 광물종합지수는 2,551.1p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 유지

’25년 2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2,551.1p를 기록하였으며, 전년 동월(2,657.6p) 대비해서는 4.0% 감소함

(단위: 2016년 = 1,000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 지수	2,657.6	2,693.1	2,805.8	2,940.7	2,793.7	2,744.4	2,656.4	2,597.0	2,727.5	2,685.1	2,610.2	2,551.3	2,551.1	0.0	-4.0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3.20.검색\)](https://www.komis.or.kr/Komis/MnrlIndc/IndxMin(2025.03.20.검색))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2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강화⁴¹⁾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2일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우리나라와 몽골은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하기로 합의함
- 몽골에는 몰리브덴,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양국 지질탐사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한국 기업의 탐사 기술을 실증할 계획임
- 협력은 단순 탐사에 그치지 않고 탐사부터 개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협력은 한국의 안정적인 희소금속 확보와 몽골의 광업 개발을 촉진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협력 모델로 기대됨

김영훈 전문연구원

051-797-4668, kyh@kmi.re.kr

41) 한겨레(2025.03.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87728.html>(2025.03.19. 검색)

8) 목재



1

'25년 1~2월 원목 수입량은 24만 5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11.9% 감소

-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원목과 성형목재 수입이 감소한 반면, 제재목과 목재펠릿 수입량은 증가함
 - 제재목 수입량은 22만 2천 m³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하였으며, 성형목재 수입량은 10,802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함
 - 합판(7.2%), 파티클보드(7.0%), 섬유판(19.5%)의 수입량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목재펠릿 수입량은 73만 7천 톤으로 42.3% 증가함
-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의 부동산 및 건설경기 침체로 글로벌 목재 수요가 위축되어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향후 미국 건설산업 회복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됨
 - 향후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내 환율 급등으로 인해 국내 목재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전년 대비 10.6% 감소하며 목재 수요 위축이 지속, 중국의 원목 및 제재목 수입도 전년 대비 각각 5%, 4% 감소함

국내 목재 품목별
수입현황

품목(단위)	2025년 누적 (1-2월)	2024년 누적 (1-2월)	증감률 (%)
원목(천m ³)	245	278	-11.9%
제재목(천m ³)	222	210	+5.7%
성형목재(톤)	10,802	12,292	-12.1%
합판(천m ³)	218	235	-7.2%
파티클보드(천m ³)	253	272	-7.0%
섬유판(천m ³)	33	41	-19.5%
목재펠릿(천 톤)	737	518	+42.3%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5.03.21.), [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WjOX7MLnCWvHjR53VdgTHzq3yU10s4UVJ5zQMec8BkipTG5GvG4HZBcLWgMJawAS.frswas02_servlet_engine5?ntld=320579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3.24. 검색\)](https://www.forest.go.kr/kfswweb/cop/bbs/selectBoardArticle.do?sessionId=WjOX7MLnCWvHjR53VdgTHzq3yU10s4UVJ5zQMec8BkipTG5GvG4HZBcLWgMJawAS.frswas02_servlet_engine5?ntld=3205797&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AR01_04_02_03&component=(2025.03.24. 검색))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2 산림청, 국산 목재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위한 목재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⁴²⁾

-  산림청이 인천 소재 목재 수출기업 (주)포레스코에서 한국합판보드협회 등 목재 산업분야 관계자들과 국산 목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는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산 목재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한국합판보드협회 신승훈 이사는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목재 수출기업 해외 인증 취득 지원체계 구축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건의함
-  산림청은 국내 목재 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및 수출시장 개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임
 - 매년 공모를 통해 4개 목재 수출기업을 선정해 국제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3개 기업을 선정해 해외 인증 취득을 지원함
 -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 기반 구축, 첨단 기술 개발 지원 등 전략적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2) 산림청 보도자료(2025.03.18.), [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0564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20250221&ntcEndDt=20250321&mn=NKFS_04_02_01&orgId=\(2025.03.21. 검색\)](https://www.forest.go.kr/kfsw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lId=3205648&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eb%a9%ec%9e%ac&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20250221&ntcEndDt=20250321&mn=NKFS_04_02_01&orgId=(2025.03.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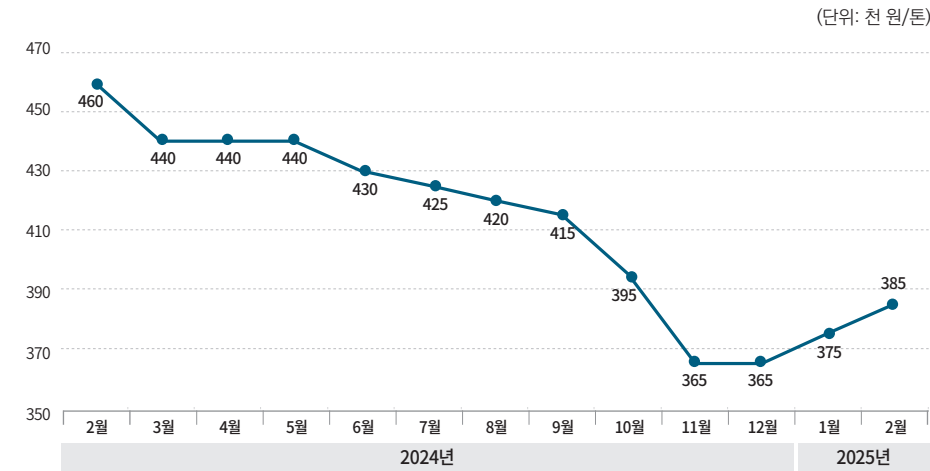
9) 고철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고철 가격 상승세 지속

- 국내 2월 생철 가격은 전월 대비 2.7% 상승한 톤당 38만 5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16.3% 하락한 수준임
- '24년 1월에 톤당 47만 원을 기록했던 고철 가격은 이후 12개월 연속 감소 또는 보합세를 기록했으나, '25년 1월부터 2달 연속 상승함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440	440	440	430	425	420	415	395	365	365	375	385	2.7	-16.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3.21.),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3.24. 검색\)](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3.24.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고철 수출 전월 대비 감소⁴³⁾

연말을 앞두고 폭증했던 국내 고철 수출이 설 연휴 이후 고철 가격의 초강세로 인해 다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철강협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고철 수출은 2만 6,2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38.3% 감소하면서 지난해 11월(2만 4,900톤)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앞서 지난해 12월 고철 수출(5만 7,800톤)은 전년 동월 대비 109.4%, 전월 대비 131.9% 급증하면서 '21년 4월(5만 8,400톤) 이후 3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음
- 이러한 수출 증가세는 국내 고철 가격이 지난해 10월부터 연이어 인하되며 주변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의 급등세로 인한 것으로 분석됨
- 2월 수출 감소에도 올해 고철 누적 수출은 여전히 전년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물량이 적고 기민한 시황 대응이 가능한 컨테이너형을 중심으로 지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1~2월 국가별 수출은 인도향이 4만 3,4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4.2% 증가했고, 중국향은 9.0% 감소한 6,600톤, 대만향은 9.7% 증가한 6,000톤, 일본향은 21.8% 증가한 4,200톤 수준임
- 한편, 국내 고철 수입은 1~2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6만 5,000톤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태국산 수입이 증가한 반면, 최대 수입처인 일본산에서 급감함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3) 철강금속신문(2025.03.12.),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3/12/PS010312010100301B0001.pdf>(2025.03.21.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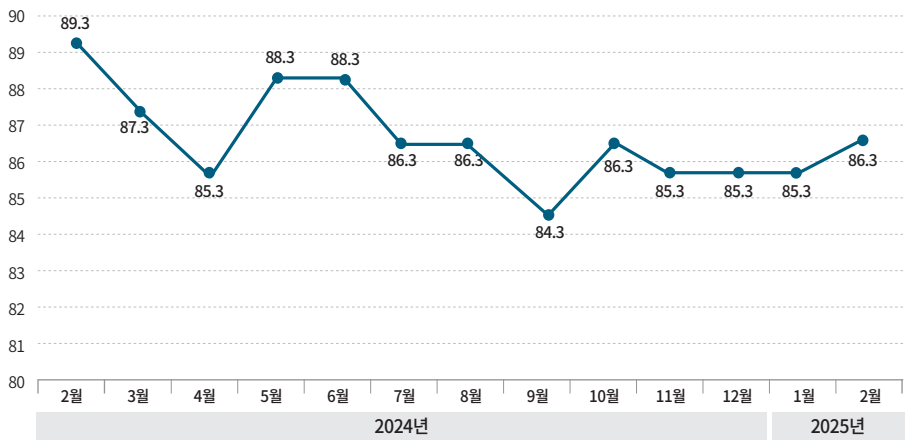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1 국내 열연코일 가격 소폭 상승

- 2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2% 상승한 86만 3천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동월 대비 3.4% 하락한 수준임
- '23년 5월까지 톤당 108만 원대를 기록했던 열연코일 가격은 '23년 6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23년 7월부터 꾸준히 톤당 80만 원~90만 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89.3	87.3	85.3	88.3	88.3	86.3	86.3	84.3	86.3	85.3	85.3	85.3	86.3	1.2	-3.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2025.03.21.), <https://www.motie.go.kr/kor/contents/103/2025.03.24>. 검색)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2 현대제철 비상경영체제 돌입⁴⁴⁾

-  최근 철강업계의 국내외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현대제철은 전 임원 급여 20% 삭감,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검토 등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함

 - 현대제철은 전 임원 급여 20% 삭감과 해외 출장 최소화 등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라 최근 포항 2공장 가동을 축소하고, 포항공장 기술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당진제철소 및 인천공장 전환 배치 등을 신청받음
 - 최근 중국과 일본 저가 철강재가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미국이 3월 12일부로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행하면서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것을 우려하며, 후판과 열연강판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위기 속,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노조와 임금 협상에서도 난항을 겪고 있으며, 현대제철 노동조합은 당진제철소 냉연공장 조업을 13일 오후 7시부터 20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함
 - 앞서 당진 1·2냉연공장은 지난 2월 1일부터 22일까지 노사분규로 인해 제품 생산이 차질을 빚었으며,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부분 직장 폐쇄를 결정한 바 있음

조성현 전문연구원

051-797-4690, shcho@kmi.re.kr

44) 철강금속신문(2025.03.17.), <http://pdf.snmnews.com/PDF/REAL/2025/03/17/PS010317010100101A0001.pdf>(2025.03.21. 검색)

11) 자동차



1 '25년 1월은 생산·내수·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모두 감소, 수입차의 경우만 25.9% 증가⁴⁵⁾

- 1월 내수는 전월 대비 2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9.0% 감소한 105,928대를 기록함
 - 국내 정치불안정과 트럼프 통상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설 연휴로 인한 영업일수 감소가 주요 원인임
 - 국산차는 13.5% 감소한 반면, 수입차는 적극적인 프로모션과 국내 제조사의 OEM 수입 증가로 25.9% 증가함
- 1월 수출은 전월 대비 2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한 199,854대를 기록함
 -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수출 감소(-34.0%)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친환경차는 전체 수출의 30.4%(60,837대)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0.1% 소폭 증가함
- 1월 생산은 전월 대비 22.2%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8.9% 감소한 290,588대를 기록함
 - 장기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임
 - 르노코리아 라인 설비 공사로 인한 공장가동 중단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침

단위 : 대, 백만 \$, %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률		
	연간	1월	1~1월	12월	1월	1~1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기 대비
내수	1,626,245	116,464	116,464	142,822	105,928	105,928	-25.8	-9.0	-9.0
(국산차)	1,344,432	103,369	103,369	117,337	89,446	89,446	-23.8	-13.5	-13.5
(수입차)	281,813	13,095	13,095	25,485	16,482	16,482	-35.3	25.9	25.9
수출	2,782,612	243,184	243,184	251,820	199,854	199,854	-20.6	-17.8	-17.8
(완성차 수출액)	70,786	6,210	6,210	6,046	4,993	4,993	-17.4	-19.6	-19.6
(부품 수출액)	22,549	1,901	1,901	1,875	1,555	1,555	-17.1	-18.2	-18.2
생산	4,128,242	358,464	358,464	373,361	290,588	290,588	-22.2	-18.9	-18.9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2025.0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8&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3.21. 검색)

'25년 1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5)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2025.02.28.),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338&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5.03.21. 검색)

2 산업부, '자동차 대미협력TF' 개최... 미국 관세부와 등 현안 대응 논의⁴⁶⁾

-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TF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관세 부과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 수렴과 대응방안을 논의함
 - 회의는 제조산업정책관 주재로 한국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코트라 등 유관기관이 참석함
 - 민관 대미협력 TF는 '24년 11월 산업부 장관 주재 자동차 업계 영향 점검 회의 이후 구성되어 수시로 운영 중임
- 참석자들은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와 경쟁국과의 경합 격화로 인한 우려 사항을 논의함
 - 자동차 수출에 차질이 우려되고 국내 부품산업으로의 충격 전이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함
 - 한국 자동차 산업계의 대미 투자가 미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양국 간 공급망 연결성이 긴밀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민관 협력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산업부는 대외불확실성 심화에 대비해 자동차산업 충격 최소화 대책 마련 예정임
 - 산업계에서 제안한 수출 다변화, 부품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자금 지원 등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할 예정임
 - 다음 달(4월) 중으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힘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6)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5.03.07.),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244/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3.21. 검색\)](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0244/view?mno=&pageIndex=1&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EC%9E%90%EB%8F%99%EC%B0%A8#(2025.03.21. 검색))

3 트럼프 관세 부과로 국내 자동차 산업 타격 우려⁴⁷⁾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됨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모든 나라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관세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면, 한국산 자동차도 관세 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함
-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404억 달러(약 58조 원)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미국의 주요 관세 부과 대상으로 지목됨

미국 현지 생산 확대가 불가피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수출 감소가 예상됨

- 현대차는 이달 말 미국 새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기아도 미국 내 생산량을 최대치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임
-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던 30만~50만 대와 한국GM의 40만 대 등 국내산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관세 부과는 국내 자동차 부품 업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됨

-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어 관세로 인한 경영 악화와 생산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고 언급함
- 정부는 다음 달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나,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조아현 전문연구원

051-797-4696, ahjo@kmi.re.kr

47) KBS(2025.03.19.),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4132&ref=A\(2025.03.21. 검색\)](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204132&ref=A(2025.03.21. 검색))

12) 잡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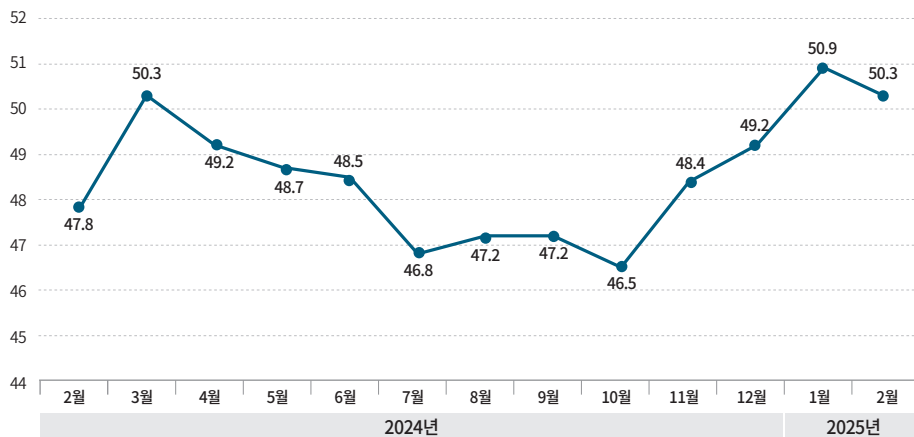


① 미국 공급자관리협회(ISM), 2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3p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⁴⁸⁾

2월 PMI지수는 전월(50.9p) 대비 하락하였으며, 시장의 예상(50.5p)을 밑도는 수치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 둔화를 시사함

- 이러한 수치는 관세 정책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 가속화되면서 신규 주문 적체, 공급업체의 배송 중단 및 제조업 재고에 있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됨
- 아울러 생산 지수 역시 '25년 1월, 52.5p에서 '25년 2월, 50.7p로 고용 지수는 '25년 1월, 50.3p에서 '25년 2월, 47.6p로 각각 감소함
- 또한, 신규 주문은 2월 48.6p로 '22년 3월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 가격 압력은 같은 기간 62.4p로 '22년 6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미국 PMI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자료: Trading Economics(2025.03.03.), KMI 작성

최상균 전문연구원

051-797-4699, sgchoi@kmi.re.kr

48) Trading Economics(2025.03.03.),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2025.02.21.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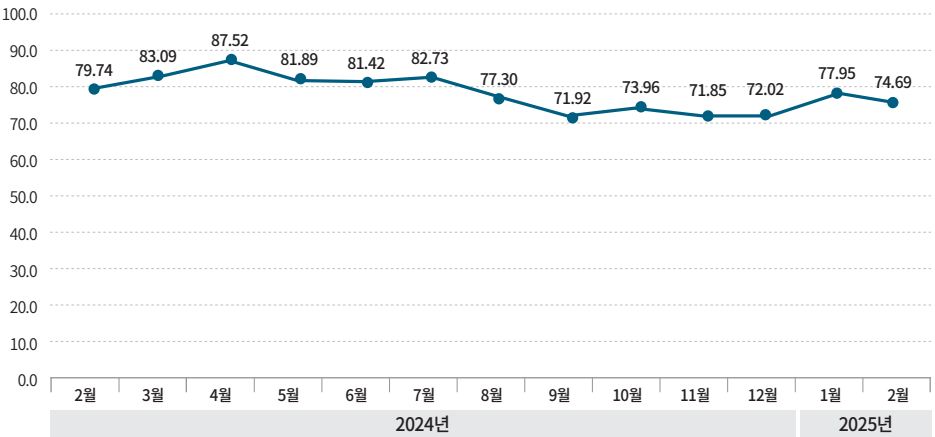
13) 유류



1 '25년 2월 국제유가, 한 달 만에 하락 전환

- '25년 1월, 크게 올랐던 유가는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하였으며, 2월 세계 3대 유종의 배럴당 평균 유가는 전월 대비 4.2% 하락하면서 74.69달러를 기록함
 - 석유 생산 정책과 미-중 갈등, 트럼프의 관세정책 등 자국 중심의 정책 발표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갈등과 공급망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며, 경기 위축 우려로 당분간 유가는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80.88	84.18	89.17	84.04	82.56	83.83	77.60	73.52	74.94	72.61	73.23	80.41	77.92	-3.1	-3.7	
Brent	81.72	84.67	89.00	83.00	83.00	83.88	78.88	72.87	75.38	73.40	73.13	78.35	74.95	-4.3	-8.3	
WTI	76.61	80.41	84.39	78.62	78.70	80.48	75.43	69.37	71.56	69.54	69.70	75.10	71.21	-5.2	-7.0	
평균	79.74	83.09	87.52	81.89	81.42	82.73	77.30	71.92	73.96	71.85	72.02	77.95	74.69	-4.2	-6.3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국제석유가격, [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3.23. 검색\)](https://www.petronet.co.kr/v4/sub.jsp(2025.03.23. 검색))

2 우크라이나,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통한 공급망 강화 추진⁴⁹⁾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미국산 LNG 수입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인접한 유럽 내 독일·그리스·리투아니아·폴란드 등의 LNG 인수기지를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는 현재 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등과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으나, LNG 수입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미국산 LNG를 적극 도입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최대 민간 에너지 기업인 DTEK은 미국 LNG 기업 벤처 글로벌(Venture Global)과 '24년 6월 LNG 공급에 대한 합의를 체결(MOU)했으며, 이는 장기적인 LNG 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LNG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카타르 등 경쟁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LNG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3 미국,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참여 희망⁵⁰⁾

 알래스카 주지사는 우리나라에 알래스카 LNG 개발사업 투자를 공식 요청하고 관련 협의를 위해 방한할 예정임

- 주지사의 방한은 3월 25~26일로 예상되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과 면담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함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투쟁의 목적은 에너지 비용을 빠르게 줄이는 것이라며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와 일본의 참여를 요구함
-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청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진행 속도가 높아지면서 가스관 사업 관련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49) 투데이에너지(2025.03.13.),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0603>(2025.03.23. 검색)

50) 뉴시스(2025.03.1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314_0003098775(2025.03.23. 검색)

4 미 관세·부과, 원유·가스 등의 수입을 통한 대응 필요⁵¹⁾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발표자료를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에 원유·천연가스 등의 수입을 늘려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함
- 해당 연구원은 ‘조세재정브리프 :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인상은 결국 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며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함을 강조함
 - 미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인 원유·천연가스·프로판 가스 등의 수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원유 도입을 다변화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함
 - 통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감소로 인해 경기 둔화를 피할 수 없고 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 공동화와 지역 경제 침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1) 시사저널(2025.03.1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810>(2025.03.23. 검색)

12) 화학공업
생산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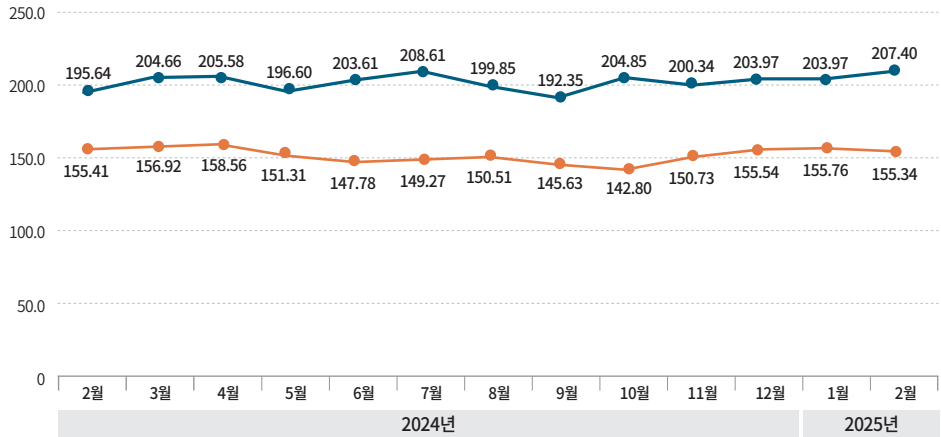
① '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하락, 에틸렌 소폭 상승

2월 나프타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하락한 207.40p를 유지했으나, 에틸렌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여 155.34p를 기록함

- 원유 정제를 통해 생산되는 나프타의 '25년 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원유 가격 상승으로 상승했으나, 2월 원유 가격이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함
- 나프타 크래킹 등을 통해 생산되는 석유화학산업의 핵심원료인 에틸렌의 '25년 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5% 상승함
- 유가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 나프타와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반적인 추세를 보이지 않고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 나프타
● 에틸렌



구분	2024년												2025년		증가율(%)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95.64	204.66	205.58	196.60	203.61	208.61	199.85	192.35	204.85	200.34	203.97	212.05	207.40	-2.2	6.0	
에틸렌	155.41	156.92	158.56	151.31	147.78	149.27	150.51	145.63	142.80	150.73	155.54	154.50	155.34	0.5	0.0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3.23. 검색\)](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5.03.23.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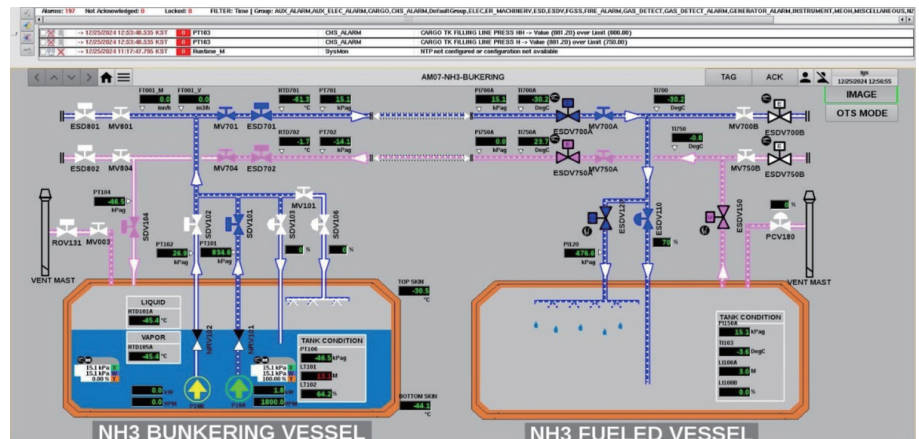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2 한국선급, 암모니아 벙커링 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⁵²⁾

- 한국선급(KR: Korea Register)은 트랜스가스솔루션(TGS)과 함께 KR 본사 내 LNG 추진 및 벙커링 시뮬레이션 센터(KR LSC)에 ‘암모니아 벙커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구축함
-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KR은 '20년 시뮬레이션 센터를 개소하고 LNG 연료 공급 및 벙커링 시스템 교육, 위험도 해석 등 관련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번에 구축한 암모니아 벙커링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TGS가 작성한 암모니아 연료 공급 및 벙커링 시스템 설계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KR은 새 시스템 구축으로 LNG, 메탄올에 이어 암모니아까지 벙커링 시스템을 갖추고 기술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됨

암모니아 벙커링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화면



자료: 연합뉴스(2025.0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11900051?input=1195m>(2025.03.23. 검색)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2) 연합뉴스(2025.02.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111900051?input=1195m>(2025.03.23. 검색)

③ 산업통상자원부, 올해 수송용 수소 수요 2만 3,000톤 전망⁵³⁾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25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를 열어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과 수소차 보급 계획 등을 논의함

- 산업부는 올해 버스·승용차 등 수송용 수소 수요량은 최대 2만 3,000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수소 공급업체에 차질 없는 공급을 당부함
- 정부는 수소차 보급 계획,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버스 공급과 충전소 운영 계획을 밝혔으며, 환경부는 올해 수소버스 2,000대, 수소승용차 1만 1,000대, 화물차·특수차 10대 등을 보급할 계획임

신정훈 전문연구원

051-797-4695, jh.gary.shin@kmi.re.kr

53) 브릿지경제(2025.03.14.), [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14500269\(2025.03.23. 검색\)](https://www.viva100.com/article/20250314500269(2025.03.23. 검색))

연구책임자

최석우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연구진

이기열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조아현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최상균 항만수요분석연구실 전문연구원

감리

김근섭 항만연구본부장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5년 3월 31일

편집·발행인 최상희 원장 직무대행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동삼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www.kmi.re.kr

TEL 051-797-4800 **FAX** 051-797-4810

편집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 **TEL** 02-2273-1775